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1, 289-298

<Brief Report>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신념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에 관한 연구*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Breen과 Zuckerman(1994)이 개발한 Gambling Attitude and Belief Survey(GABS) 의 우리나라 판인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신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도박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795명을 대상으로 GABS와 한국형 South Oaks 병적 도박 검사(K-SOGS), 그리고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 GABS의 내적 합치도 계수(α)는 .91로 높은 편이었으며,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와 유의미하지만 비교적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요인분석 결과, 이 척도는 단일 요인 모델이 전체 변량의 31.47%를 설명하였으며, 35개의 문항중 7문항을 제외한 28문항이 단일 요인에 .3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K-SOGS 점수를 기준으로 병적 도박 집단, 문제성 도박 집단 및 건전 도박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병적 도박 집단의 GABS 총점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병적 도박 집단을 잘 변별하는 19 문항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신념 척도, 신뢰도, 타당도, 병적 도박

---

* 본 연구는 2004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영 호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
FAX : 032-345-5189 / E-mail: yhlee@catholic.ac.kr

최근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과 같은 합법적인 도박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병적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병적 도박은 당사자에게도 경제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을 주지만, 약물 남용, 자살, 이혼, 파산, 그리고 다양한 법적 문제 등을 일으켜 가족이나 사회에 커다란 폐해를 안겨주기도 한다. 이처럼 심각하고 광범위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병적 도박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병적 도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족적 및 유전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요인이 병적 도박의 발병과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Lesieur & Rosenthal, 1991; Raylu & Oei, 2002). 특히 병적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 심리 상태, 그리고 인지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Coventry & Norman, 1997), 이중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병적 도박의 발병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에 대한 연구와 함께 병적 도박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예, Blaszczynski & Silove, 1995).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도박과 관련된 인지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Breen과 Zuckerman(1994)은 병적 도박에 있어 인지적 매개 변인의 영향들, 즉 도박에 대한 오류, 비합리적 신념, 가치와 태도에 관심을 두고 도박성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박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Gambling Attitude and Belief Survey(GABS)를 고안하였다. GABS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말 그렇다'에서 '정말 아니다'까지 4점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박이 재미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으며 운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GABS에서 측정하는 내용은 도박에 관여하면 할수록 증가하는 넓은 범위의 신념, 태도, 가치, 그리고 편향 등이 포함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도박을 통한 긍정적인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를 반영하는 문항들, 통제에 대한 착각이나 운에 대한 믿음과 같은 도박에 대한 인지적 편향을 나타내는 문항들, 그리고 정적인 정동을 증가시키고 부적인 정동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박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Strong, Breen, & Lejuez, 2004).

본 연구에서는 GABS 한국판의 신뢰도 및 공존 타당도를 알아보고,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 내용의 요인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형 South Oaks 병적 도박 검사(K-SOGS)로 병적 도박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GABS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병적 도박의 변별 타당도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도박중독에 대한 인지적인 접근을 적용하는 연구와 치료 장면에 사용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 도박장 출입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설문에 협조적으로 반응한 382명을 포함하여 도박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795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남자는 559명(70.3%), 여자는 236명(29.7%)이었다. 연령

별로 보면 20대 298명, 30대 165명, 40대 240명, 50대 77명, 그리고 60대 5명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441명, 대졸이 247명, 대재 또는 대퇴가 82명, 중졸이 21명, 국졸 이하가 4명이었다. 도박 경험을 보면, 화투도박을 경험한 사람이 294명, 복권 293명, 경마 226명, 트럼프 127명, 하우스도박 91명, 카지노 86명, 경륜 65명, 경정 41명, 인터넷 도박 28명 순이었다.

도구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신념 척도(GABS)를 우리말로 번안한 것과 한국형 South Oaks 병적 도박 검사(K-SOGS), 그리고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신념 척도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Breen과 Zuckerman(1994)이 고안한 Gambling Attitude and Belief Survey(GABS)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 척도는 35개 문항에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Breen과 Zuckerman(1994)의 연구에서 .93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한국형 South Oaks 병적 도박 검사

한국형 South Oaks 병적 도박 검사(K-SOGS: Korean form of South Oaks Gambling Screening, 최완철 등, 2001)는 Lesieur와 Blume(1987)이 제작한 South Oaks Gambling Screening(SOGS)을 우리말로 번안한 것이다. 이것은 DSM-III의 병적 도박 진단기준에 근거한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보고 방식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가나 비전문가에 의해서 면접양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가능한 총점 범위는 0 - 20점이며, 5점 이상인 경우 병적 도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3점이나 4점에 해당되는 경우 잠재적인 도박중독 문제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검사는 7가지 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1) 가정의 붕괴, 2) 직장의 붕괴, 3) 도박의 승패에 관련된 거짓말, 4) 채무의 불이행, 5)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인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 6)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빌리거나, 7)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최완철 등(2001)의 연구에서 .95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는 Steenbergh, Meyers, May 및 Whelan(2002)이 개발한 Gambling Belief Questionnaire(GBQ)를 근간으로 하여 Langer와 Roth(1975)의 통제력 착각 척도의 문항을 추가하여 이홍표(2003)가 제작하였다. 5점 척도 30문항의 척도로 두개의 하위 척도로 나누어 채점된다. "자기과신적 및 비논리적 추론" 하위 척도는 21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기술 과대평가적 추론" 하위 척도는 9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93과 .88이었다(이홍표, 2003).

결과 및 논의

먼저,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신념 척도(GABS)의 내적 합치도 계수(α)는 .91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지금까지의 GABS에 대한 외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Breen과 Zuckerman (1999)은 일반인 대상의 예비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가 .93이었으며, 병적 도박자를 대

상으로 했을 때는 .90의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Strong등(2004)의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 집단과 병적 도박 집단의 GABS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α = .92와 α = .89였다. 대부분의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도 내적 합치도 계수 .90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도구임이 밝혀졌다.

공존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GABS와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의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본 결과, 각각 .97과 .86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GABS-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 간 상관계수를 알아본 결과, GABS 총점과 비합리적 신념 척도 총점 간의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r=.17, p<.01. "자기과신적 및 비논리적 추론" 하위 척도와의 상관과, r=.15, p<.01, "기술 과대평가적 추론" 하위 척도와의 상관도 모두 유의미하였다, r=.19, p<.01. GABS와 도박에서 작용하는 인지적 오류를 측정하는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의 상관이 유의미하였지만, 상관계수가 모두 .20 이하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 결과는 GABS가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에서 측정하는 도박에 대한 인지적 편향을 측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다른 내용들-도박을 통한 긍정적인 자기 제시, 정적인 정동을 증가시키고 부적인 정동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박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을 함께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에서는 주로 인지적인 요인인 신념을 주로 측정하는 반면, GABS는 신념과 함께 태도를 측정하고 있다. 태도는 인지적 요인과 감정적 요인이 합쳐진 구성개념이라 할 수 있다.

GABS 문항을 최대우도법(maximum likelyhood method)과 사각회전을 통해 요인분석하였다. 단일 요인 모델과 2 요인 모델을 비교한 결과, 단일 요인 모델에 비해 2 요인 모델에서 부합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Delta X^2(34, N=795) = 6460.67$, p<.001. 2 요인 모델과 3 요인 모델을 비교한 결과, 2 요인 모델에 비해 3 요인 모델에서 부합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Delta X^2(33, N=795) = 581.02$, p<.001. 각 모델의 설명 변량을 비교해 보면, 단일 요인 모델은 전체 변량의 35.07%를 설명하였고, 2 요인 모델은 단일 요인 모델보다 13.72% 증가한 48.79%를 설명하였다. 3 요인 모델은 2 요인 모델보다 1.80% 증가한 50.59%를 설명하였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3 요인 모델은 2 요인 모델에 비해 부합도 면에서는 개선되었지만, 설명 변량의 면에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2 요인 모델은 부합도 면에서나 설명변량의 면에서 단일 요인 모델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두 번째 요인에 .30 이상으로 부하된 14개의 문항중 7개의 문항이 첫 번째 요인과도 .3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첫 번째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과 두 번째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이 특정한 내용에 따라 구분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GABS는 단일 요인 모델로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단일 요인 모델이 전체 변량의 35.07%를 설명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5개의 문항 중 역채점되는 3문항(#3, #11, #22)을 포함하여 모두 7문항을 제외하고 28문항이 단일 요인에 .3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외국 연구들의 요인분석 결과들도 단일 요인이 변량의 30% 이상을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표 1.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신념 척도(GABS) 각 문항의 단일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

문 항	요인부하량
25. 최근에 운이 좋았다면 계속해서 돈을 많이 걸어야 한다	.80
33. 최근에 돈을 잃었다면 내 운도 바뀔 것이다	.79
31. 잃으면 만회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79
18. 큰 돈을 거는 흥분감은 해본 사람만이 안다	.78
17. 내기나 게임에 큰 돈을 거는 사람들이 매우 멋져 보인다	.77
32. 돈내기나 게임에서 이기려면 연승 방법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75
2. 한동안 돈을 못따면 아마도 대박이 터질 것이다	.75
35. 돈을 건 내기나 게임을 하면 일상의 문제를 잊는데 도움이 된다	.75
6. 나는 언제 연승(연패) 할지를 안다	.74
20. 돈내기나 게임을 할 때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을 지녔던 적이 있다	.73
1. 돈을 건 내기나 게임을 하면 내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	.71
29. 다른 사람에게 액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다	.71
27. 기분이 저조할 때 돈을 건 내기나 게임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68
28. 돈을 거는 내기나 게임에서 이기려면 이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66
24. 카지노나 게임장에 가면 기분이 매혹적이고, 흥분이 된다	.66
15. 주사위로 하는 게임은 이기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66
23. 복권보다는 룰렛게임과 같은 게임에 기술이 더 필요하다	.65
12. 내가 돈을 건 내기나 게임을 할 때면 주위사람들에게 운이 따른다	.64
13. 대담하고 모험적인 사람들이 돈을 건 내기나 게임을 많이 할 수 있다	.58
19. 어떤 내기나 게임이건 간에 이기는 전략이 있다	.58
30. 이기고 있을 때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57
16. 나는 가끔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감을 느낄 때가 있다	.52
4. 돈을 크게 걸고도 차분하고 냉정할 수 있는 사람이 부럽다	.52
14. 나는 잃고 있을 때 그만두고 싶지 않다	.51
34. 잃어도 체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8
5. 돈을 건 내기나 게임을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45
7. 돈을 건 내기나 게임을 할 때는 내 표정을 감추는 것이 중요하다	.40
10. 돈을 건 내기나 게임을 할 때는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35
21. 돈내기나 게임을 할 때 잃어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34
8. 어떤 사람은 운이 안따른다	.29
26. 돈을 건 내기나 게임을 해서 잃으면 화가 난다	.27
22. 나는 내기나 게임을 할 때 별로 재미를 느끼지 않는다	-.15
11. 돈을 건 내기나 게임은 지루하다	-.12
9. 돈을 걸어서 이기면 기분이 아주 좋다	.09
3. 운이 좋을지 나쁠지 알 수 없다	.02

다(Breen & Zuckerman, 1999; Strong et al., 2004). Strong등의 연구(2004)에서는 3문항(#3, #22, #23)을 제외한 32문항이 단일요인에 .3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K-SOGS 점수와 GABS 총점 간의 상관은 .40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GABS 총점이 병적 도박 집단을 잘 변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K-SOGS 점수를 기준으로 병적 도박 집단(5점 이상), 문제성 도박 집단(3점-4점), 그리고 건전 도박 집단(2점 이하)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GABS 점수의 총점 평균을 구했다. 각 집단별 GABS 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건전 도박 집단이 GABS 총점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그 다음이 문제성 도박 집단, 그리고 병적 도박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차이를 일원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세 집단간 GABS의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2, 792) = 63.29$. $p<.001$. Scheffe 검증으로 두 집단간 차이들을 검증한 결과, 병적 도박 집단, 문제성 도박 집단, 건전 도박 집단 순으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Breen과 Zuckerman(1999)이 SOGS 점수와 GABS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아냈다. 이는 GABS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걸고 도박을 감행한다는 것을 신뢰롭게 예언함을 의미한다. 또한 병적 도박자나 문제성 도박자가 도박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태도나 도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신념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GABS는 도박 행위를 연속선상에 놓고 이중에서 잠재적으로 병적 도박의 위험성이 있는 도박자를 가려내는데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Breen, Kruedelbach, & Walker, 2001).

GABS의 각 문항이 병적 도박을 얼마나 잘 변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적 도박 집단과 나머지 집단(K-SOGS 4점 이하, 이하 정상 집단이라고 칭함)간 각 문항 점수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35개의 문항 중 정상집단에 비해 병적 도박 집단이 t 검증에서 .01 수준 이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이 20개 문항이었다. 이 20문항만을 가지고 단일 요인을 가정하고 주성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16의 요인부하량을 보인 10번 문항을 제외한 19개의 문항이 모두 .4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병적 도박을 잘 변별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간편형 GABS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되었다. 19 문항(#1, #2, #4, #6, #12, #13, #15, #17, #18, #20, #23,

표 2. 도박중독 집단별 GABS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량분석 결과

집 단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검증[1)]
건전 도박 집단 (n=308)	74.77	15.75		
문제성 도박 집단 (n=100)	82.00	12.45	63.29***	3 > 2 > 1
병적 도박 집단 (n=387)	86.74	12.73		
전체 (N=795)	81.50	15.00		

*** $p < .001$

1) 1 = 건전 도박 집단, 2 = 문제성 도박 집단, 3 = 병적 도박 집단

표 3. 도박중독 집단별 GABS 문항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t 검증 결과

문항번호	정상집단	병적도박집단	t 값	p	비고[1]
1	1.50(0.75)	2.47(0.82)	17.39	.000	*
2	1.55(0.76)	2.69(0.89)	19.09	.000	*
3	3.04(1.30)	3.22(0.80)	2.25	.025	
4	2.20(0.93)	2.41(0.82)	3.25	.001	*
5	2.04(0.90)	1.96(0.76)	-1.23	.219	
6	1.63(0.78)	2.84(0.87)	20.81	.000	*
7	2.51(0.97)	2.35(0.79)	-2.67	.008	
8	2.63(0.92)	2.30(0.76)	-5.57	.000	
9	2.86(0.93)	2.00(0.83)	-13.63	.000	
10	2.48(0.90)	2.80(0.76)	5.47	.000	*
11	3.22(0.84)	3.13(1.19)	-1.16	.248	
12	2.09(0.76)	2.53(0.68)	8.62	.000	*
13	2.17(0.86)	2.40(0.81)	3.87	.000	*
14	2.10(0.80)	2.12(0.79)	0.42	.678	
15	2.10(0.82)	2.55(0.71)	8.36	.000	*
16	2.22(0.84)	2.28(0.70)	1.12	.264	
17	1.69(0.78)	2.72(0.91)	17.10	.000	*
18	1.69(0.81)	2.67(0.88)	16.37	.000	*
19	2.29(0.89)	2.37(0.79)	1.47	.143	
20	1.60(0.81)	2.65(0.89)	17.50	.000	*
21	2.59(0.85)	2.24(0.65)	-6.39	.000	
22	3.50(0.81)	3.38(0.72)	-2.35	.019	
23	2.29(0.91)	2.57(0.82)	4.54	.000	*
24	2.02(0.89)	2.29(0.81)	4.58	.000	*
25	1.84(0.78)	2.56(0.81)	12.82	.000	*
26	2.50(0.92)	2.08(0.79)	-6.97	.000	
27	1.98(0.80)	2.25(0.73)	4.99	.000	*
28	2.19(0.89)	2.33(0.75)	2.33	.020	
29	2.03(0.86)	2.41(0.72)	6.81	.000	*
30	2.25(0.84)	2.23(0.70)	-0.32	.749	
31	1.65(0.77)	2.63(0.86)	16.97	.000	*
32	1.96(0.83)	2.48(0.76)	9.21	.000	*
33	1.85(0.77)	2.46(0.76)	11.31	.000	*
34	2.51(0.96)	2.45(0.80)	-0.96	.336	
35	1.84(0.84)	2.45(0.83)	10.28	.000	*

주. ( )는 표준편차임

[1]. *는 정상집단에 비해 병적 도박 집단이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은 문항임

#24, #25, #27, #29, #31, #32, #33, #35)으로 이루어진 가칭 '간편형 GABS'는 내적 합치도가 .94이고, 단일 요인으로 변량의 46.44%를 설명해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말로 번안된 GABS의 측정도구로써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GABS를 사용하여 병적 도박에 관련된 인지적 요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임상 실제에서 평가나 치료 장면에 널리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들을 통하여 GAB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나 다양한 타당도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흥표 (2003).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병적 도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2권, 413-434.

최완철, 김경빈, 오동열, 이태경 (2001). 한국형 사우스 오크 병적 도박 검사 표준화에 대한 예비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5*, 46-52.

Blaszczynski, A. P., & Silove, D. (1995). 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ies for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1*, 195-220

Breen, R. B., Kruedelbach, N., & Walker, H. (2001). Cognitive changes in pathological gambler following a 28-day inpatient program.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5,* 246-248.

Breen, R. B., & Zuckerman, M. (1994). *The Gambling Beliefs and Attitudes Survey.* Unpublished instrument, University of Delaware.

Breen, R. B., & Zuckerman, M. (1999). 'Chasing' in gambling behavior: Personality and cognitive determina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1097-1111.

Coventry, K. R., & Norman, A. C. (1997). Arousal, sensation-seeking and frequency of gambling in off-course horse racing bettor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8*, 671-681.

Langer, E. J., & Roth, J. (1975). Head I win, tails it's chance: The illusion of control as a function of the sequence of outcomes in a purely chance ta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951-955.

Lesieur, H. R., & Blume, S. B. (1987). The South Oaks Gambling Screen(SOGS): A new instrument for the identification of pathologic gambl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 1184-1188.

Lesieur, H. R., & Rosenthal, R. J. (1991). Pathological gambl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Gambling Studies, 7*, 5-39.

Raylu, N., & Oei, T. P.S. (2002). Pathological gambling : A comprehens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1-53.

Steenbergh, T. A., Meyers, A. W., May, R. K. & Whelan, J. P.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amblers' Beliefs Questionnair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6,* 143-149.

Strong, D. R., Breen, R. B., & Lejuez, C. W.

(2004). Using item response theory to examine gambling attitudes and belief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1515-1529.

원고접수일 : 2006. 1. 9
게재결정일 : 2006. 2. 10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1, 289-298

<Brief Report>

A Study on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Gambling Attitude and Belief Survey

Young-Ho L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Gambling Attitude and Belief Survey(GABS), the GABS, the Korean South Oaks Gambling Screen(K-SOGS), and the Irrational Gambling Belief Questionnaire(IGBQ) were administered to 795 adults which had experienced gambling. the GABS showed good internal consistency(α = .91) and modest concurrent validity(r = .17) with IGBQ. Factor analysis of the GABS revealed single factor solution is appropriate. Pathological gamblers scored higher than problem gamblers, and pathological and problem gamblers scored higher than non-problem gamblers on the GABS. By item analysis, 19 items identified to be effective items in differentiating pathological gamblers from other gamblers.

Keywords : the Gambling Attitude and Belief Survey(GABS), reliability, validity, pathological gambling